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더하기 인생(루카 13,22-30 (다))

창립감사에배 코로나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개척한 '코로나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대섭, 722 S. Main St., Corona, CA 92882)가 6월 26일(일) 오후 4시에 창립감사에배를 드린다.

코로나은혜한인교회는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위하여' 를 비전으로 선교적 교회와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대섭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리더십 분야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미 육군 예비역 군종 대위로 임관되어 사역했으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후학들 양성에 힘쓰고 있다.

▶ 문의: (714) 336-4378
gkccorona22@gmail.com

장학생 선발 새생명선교회

새생명선교회(회장 박희민)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미국 내 4년제 정규 대학(신학대학원 포함) 재학생(가을학기 졸업 예정자 제외)과 가을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이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 1인당 1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 마감일은 이달 30일이다. 선발 신청은 새생명선교회 웹사이트(www.newlifemissionfdn.org)에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선발신청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입증명서(학부모 세금보고서) 신앙간증서, 추천서(출석 교회 담임 목사) 등이며, 서류는 선발신청서 접수 후 이메일(newlifemissionfdn@gmail.com)이나 우편(KCMUSA, 680 Wilshire Pl. #419, LA, CA 90005)으로 보내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8월 6일 새생명선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되고 선발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 문의: (213) 365-9188

"신부님 입에서는 언제나 하느님 사랑이나, 인간 사랑이니 말씀만 하시니 한마디 말씀으로 '인간의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어느 소녀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돌하고도 진지한 물음이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이란 멀고도 가까운 것이며, 넓고도 깊고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히 노래 부를 수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네모가 났는지, 세모가 났는지 둥근지도 모르지만 끝이 없고 한이 없다면 옛 사람들의 말처럼 참된 사랑을 인간의 한정된 한마디 말로써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참 망설이던 나는 물고 있는 소녀 뒷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이 저 십자가가 표하는 끊임없는 '더하기 표'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에는 홀로 있던 한 인간이 혼인성사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여기서 또 모성애가 나오오, 한정되고 제한되어 테두리져 있는 인간들끼리 서로 더하기가 되어 우정이나 이웃이나, 인간애나 조국애나, 형제애나 하는 모든 애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을 다하고 지력을 다하여 네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대하고 첫째가는 계명입니다. 둘째도 이와 비슷하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새 계명도 사실 따지고 계산해 보면 부족하고 한정된 나란 인간을 계속 더해 가서 하느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사랑의 가르침과, 재촉이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고통은 우리 인간 앞에 더하기(+)표로, 십자가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꼭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싶어하십니다. 하느



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고통은 우리 인간 앞에 사랑하는 십자가 형태인 "더하기 표" 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을 잡으려 할 때 그 인간은 주님이신 하느님을 만나 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인간들이 나와나, 그대들과 우리들인 간간 관계로만 끝날 때, 황적인 관계만으로 끝날 때, '빼기표' (-)로 나타나는 피해 의식과 손해만 본다고 사랑의 원망과 한탄만을 되짚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자 인생이란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이 가고, 날이 가도 수많은 대인 관계에서 다시 받을 길 없는 사랑과 배반과 배신! 이전 사랑할 기력마저 꺾인 듯 더 이상 빼와 살을 빼앗긴 사랑에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 인간의 무리! 나오 대열! 잉여 인간들! 확실히 그들의 인생 계산법에 착오와 잘못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탓도, 그런 인생의 계산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같이 보이는 인간들의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며 "엑스트라" 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은 내가 계산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며, 최후에 내가 하느님 앞에 셈바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일생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돌아다보면 이웃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무수히 빼앗기기만 하고 손해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랑의 어두운 그림자" 입을 능동적으로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너와 나의 인간관계만을 보고 그 위에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신앙생활을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할 때마다 머리와 가슴과 양 어깨에 성호경을 그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더하기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 이웃과 당신을 더해 가렵니다." 라고 사랑의 약속과 더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더하기(+) 인생 계산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적자가 아니라 흑자 인생인 것입니다. 흑자 인생을 이룩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백명기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2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9				8			5
		3	5	7			
	4				9	8	
1	6				7		9
						6	7
5	9		3		1		4
	8	2					4
				5	3	7	
		6	4			3	2